



## 송담스님 '할' 청정승가가 '답'

'바른불교', 14일 공동선언  
"권승, 三寶로 인정않겠다"

각계 165명 재가불자 참여  
부패 출가자 척결운동 전개  
"불교 위기 극복 힘 모을 것"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의 모임'은 10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담 스님 탈종에 즈음한 재가불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불교 선지식인 인천 용화선 원장 송담 스님의 조계종 탈종을 현 불교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받아들여 청정 승가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의 모임(이하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10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담 스님 탈종에 즈음한 재가불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모임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송담 스님의 탈종은 청정 수행 가풍이 퇴락한 데 대한 준엄한 경책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선언문에서 "송담 스님의 '수행가풍이 맞지 않다'는 말씀은 종단의 타락한 수행 풍토를 만들어낸 정치승들을 척결하지 못한 중도들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청정하지 못한 출

가자들은 더 이상 존경 받는 승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준엄한 경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삼비 불자들이 승단을 분열하고 다룬던 비구들에게 공양을 거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부패, 도박, 폭력, 은처, 정치권승 등 수행자답지 못한 출가자들을 스님으로 인정 않고 공양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로지 바른 수행을 이어가는 지계청정한 스님만을 삼보로 공경하겠다는 것이다.

종단의 위기를 보고도 침묵하는 종단의 구조적 부패 현실에 대해서도 재가불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이권

이해 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을 일삼는 권승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주요 사찰을 장악하여 참 수행자는 바람 하나 풀 곳이 없는 것이 종단의 현 모습"이라며 "송담 스님의 청정한 종단 구현에 대한 경책을 송구스럽게 받아들여할 종단 집행부는 '송담 스님은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승적이 없으므로 제적원 처리조차도 필요 없다'는 참담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청정 수행자로 이름 높은 스님조차 계산 수 없게 하는 조계종이 과연 한국불교의 법맥을 이은 종단인가"라고 반문하며 "송담 스님의 '할'로 이미 부패한 종단은 '덜'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종단에 스님의 승적을 회복하고 여법하게 모실 것을 비롯해 △ '분한신고' 발언으로 송담 스님을 모욕한 총무부장 정만 스님 해임 △ 종단의 정치 파벌 모두 해체 △ 청정하지 못한 승려 발본색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불교의 청정성 회복과 수행 풍토 쇄신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사부대중의 외연을 확대하고 바른 스님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며 매달 1번씩 세미나를 개최해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방안과 현안 해결 모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조계종이 진행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가짜 쇄신 운동"이라며 "제법에서 청정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종단 내부의 자정능력을 회복해 청정 승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정한 바른 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은 지난 9월 12일, 송담스님의 탈종선언 이후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계종의 청정 수행가풍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결집됐다. 현재까지 총 165명이 연명을 통해 동참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도 가을 나들이

전국의 사찰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이다. 10월 17일부터 국화축제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 더더라'를 열고 있는 서울 조계사 도량엔 가을축제가 가득하다. 가을국화를 감상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사부대중 사이로 부처님도 가을축제에 나뉘었다. 조계사가 국화밭에 마련한 '허허금강(사진 왼쪽)'과 '허허부처'이다. 미술가 임옥상의 작품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금강경의 글자로 형성한 것이다. 글씨 사이의 텅빈 공간은 물질로 존재하지 않던 느낄 수 있는 부처님을 나타낸 것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 법인관리법, 현실 맞게 다시 개정한다

조계종 총무원, 14일 개정안 입법 예고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일선 법인에 맞게 새롭게 조정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4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에 대해 '이사의 자격은 종단소속 승려'를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완화시켰다. 이는 일부 사찰보유법인에서 투명한 법인 운영을 위해 재가자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업무관장 및 협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 역시 법인들의 종단등록과정에서 제시된 일선 법인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리 제한을 삽입했다. 이에 따른 징계 역시 강화됐다.

미등록법인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사찰보유법인 임원 조정

종단·법인 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 맞는 개정 추진

△각종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법인의 도제에 대해서는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종비장학 △종단 교육 및 교육기관 입학 △선원 입방이 제한되며 고의로

법을 회피한 자도 같은 내용의 권리 제한이 이뤄진다.

또한, 미등록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고의로 법을 회피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권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는 징계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법인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이의와 의견 수렴은 오는 11월 2일까지 총무부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론 수렴 이후에는 11월 개월말 중앙총회 정기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법인관리법 시행 과정에서 법인 성격에 따른 이사 비율 조정 및 법인 협의체 구성 등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 개정을 통해 법인 설립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등록법인에 대한 법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기에 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재 사항을 명료하게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당선자 확정

16일 전국 교구서 선거... 직선 51명 · 직능 및 비구니 29명 당선

총 12곳서 경선 진행돼  
44%가 초선 의원 '약진'  
첫 종회 내달 10일 예정

조계종 중도들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직선직 중앙총회의원 51명과 직능 및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29명 등 80명으로 16대 중앙총회가 구성되게 된다.

조계종은 10월 16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직선직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진행했다. 의원 정수에 맞게 출마한 8곳 포한해 중도 사퇴 등을 이유로 투표없이 당선 확정 지은 12곳

은 투표하지 않았다.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직할교구에서는 당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호 5번 가섭 스님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763명의 선거인단 중 4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우봉 스님이 122표, 법원 스님이 108표, 현민 스님이 103표, 덕현 스님이 8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가섭 스님은 72표, 성원 스님은 3표를 받았으며,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용주사는 성무 스님과 환적 스님이 각각 81표와 41표를 얻어 당선됐고, 법주사는 정덕 스님이 102표, 원경 스님이 96표를 받아 중앙총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마곡사는 선일 스님(41표)과 제민

스님(39표)이, 직지사는 장평 스님(42표)과 법보 스님(28표)이, 동화사는 지원 스님(73표)과 선광 스님(72표), 해인사는 제정 스님(133표)과 원타 스님(112표), 도현 스님(99표)이 통도사는 진각 스님(181표)과 오심 스님(141표)이, 송광사는 연광 스님(76표)과 자공 스님(71표)이 당선자로 확정됐다.

대흥사는 당선이 유력했던 법인 스님이 탈락해 법원 스님과 월우 스님이 각각 26표, 24표로 당선자로 확정됐으며, 선거인단 논란을 빚은 관음사는 합결 스님(21표)과 정인 스님(16표)이 봉선사는 동산 스님(63표)과 해송 스님(44표)이 당선됐다.

12곳은 의원 정수에 맞게 출마하

거나 후보자들의 사퇴로 무투표로 당선 확정 지었다. 조계종 직능직 중앙총회의원 20명과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9명은 13일 열린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당선자를 뽑았다.

이번 선거 결과 비구니 대표를 제외한 71명 중 31명이 초선의원(44%)으로 중앙총회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다선 의원은 7선인 영당 스님이며, 지홍 스님과 영배 스님이 6선이다.

16대 중앙총회 의원들은 11월 9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16대 중앙총회 개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기를 시작할 일주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어 11월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2면)

### 1015호 INDEX

시방세계 5

명사가 차드 맹탄  
방한 현장을 가다



기회원재 13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  
-천수 맥적산 석굴



## 한옥 최신공법 (금속공법) (금속 + 목조 결합공법)



- 비용절감, 시공기간 단축
- 사후관리 편의성
- 법당, 요사채, 교육관, 강당
- 단열성 우수
- 공간 활용도 100%
- 고층 시공 전문화



주소: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78번길 42-1 회사홈페이지: www.samhan-ksh.com  
E-mail: samhandcm@naver.com H.P: 010-8725-7753 TEL: 031)997-0760 / FAX: 031)997-3963